2014년 01월13일 월요일
명씨대종보 제5호

明氏大宗報

www.myungc.com

2012년 10월 26일 창간

발행인 : 명씨대종회 회장 명위진, 편집인 : 상임부회장 명광길, 편집국장 : 상임이사 명광주, 발행처 : 413-883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파평산로408번길 49 명씨대종회/사무국장 명순식, 전화 : 031-953-0756, 팩스:031-953-1617

청마의 해,
시조 황제의 높은 뜻과 기상,
그리고 그 상서로운 기운을 듬뿍 받아
새해 내내 역동적인 모습으로
새로운 꿈을 힘차게 펼쳐나가시길 기원합니다

명위진

명씨대종회 회장 **명 위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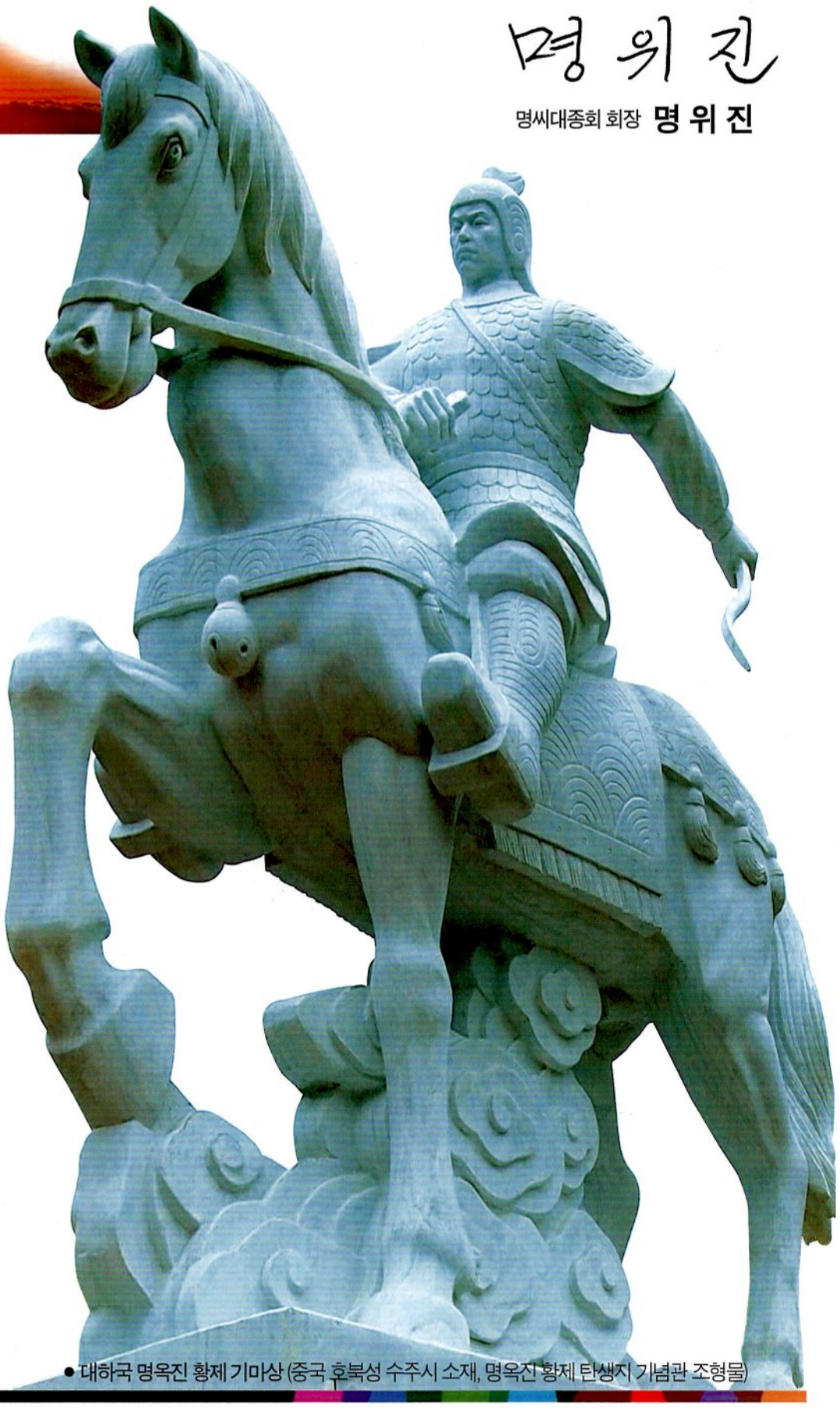
종친 여러분,
2014년 새해의 밝은 빛이 온 세상을 환히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 명씨의 시조이신 대하국 명옥진 황제께서는 지금으로부터 653년 전인 1361년 중국의 대평원을 달리며 어지러운 원(元)말의 세상을 평정하여 왕이된 후, 마침내 1363년 대하국을 세우고 황제가 되셨습니다. '밝고 옳음이 어둡고 그릇됨을 물리친다'는 명교(明教)의 가르침을 따라 어려운 백성들을 구하고, 정의를 바로 세워 백성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우리 시조에 관한 소중한 역사 기록이자 물증인 예릉에서 출토된 현궁지비(玄宮之碑)는 시조황제께서는 사람됨이 영민하고 말 위에서 활을 잘 쏘셨다고 새기고 있습니다.
그 정신과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자랑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처럼 훌륭하고 어진 황제 어르신의 후손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올해가 마침 우리 시조 할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말의 해입니다. 2014년 말띠 새해가 우리 명씨들을 위한 특별한 해인 것 같습니다.

청마의 해, 갑오년을 시작하며 시조 할아버지의 높은 뜻과 기상, 그리고 그 상서로운 기운을 듬뿍 받아 우리 모두가 힘이 넘치는 청마처럼 새해 내내 역동적인 모습으로 새로운 꿈을 힘차게 펼쳐나가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종친 가족 모두가 희망찬 계획을 현실로 만들며, 건강함 속에서 따뜻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행복과 평안을 이어가시길 빕니다.
그리고 종친 서로가 끈끈한 정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 명씨대종회도 더욱 크게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협조가 필요합니다.

우리 대종회의 지난 2013년은 2012년에 이어 우리 명씨들이 한 단계 더 도약 발전하기 위한 기본들을 손질하고 준비하기에 바빴던 한 해였습니다. 이 어렵고 많은 대종회의 일들을 위해 특별히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해주신 여러 종친들을 기억합니다. 한분 한분을 모두 거명할 수는



● 대하국 명옥진 황제 기마상 (중국 호북성 수주시 소재, 명옥진 황제 탄생지 기념관 조형물)

없지만, 모든 분들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대종회 발전을 위해 저에 앞서서 전심 전력해주신 전임 회장님들과 임원 여러분, 그리고 종친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해온 일은 하나하나 의미가 있고 보람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흐뭇하고 기쁩니다.

대종회의 발전이라는 것은 우리의 미래가 더욱 번창할 수 있도록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며, 조금 더 높고 든든하고 완전하게 쌓아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핏줄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가치롭게 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됩시다.

명씨대종회를 키워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명씨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대종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2014년 우리 대종회의 새해는 저의 이런 소망이 이루어지는 해가 됐으면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종친 여러분!
올해에도 우리 대종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동안 준비해온 일들을 기반으로 모든 것들이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합시다.
종친회의 일은 우리 스스로를 위한 것입니다. 종친 모두가 일치단결해서 우리의 발전을 이야기하고 미래를 준비함으로써 시조 황제 어르신의 높은 뜻을 받들고 실천해 나갑시다.

후손들이 그 높은 뜻을 완성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필요로 하는 토양과 환경을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급변하는 세상, 우리 모두가 저마다 훌륭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황손의 긍지를 갖고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반드시 이겨내고야 말겠다는 단단한 의지와 각오로 새해를 살아갑시다. 그래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성공을 일구는 영광을 우리가 이어나갑시다. 그러한 가운데 틈틈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를 이야기합시다.

올해 내내 종친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가운데 만복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명씨대종회, 2012년에 이어 2013년 해온 일들을 돌아 본다

첫째, 대종회칙을 알기 쉽게 재정비

1988년 5월1일 제정시행 이후 3번의 개정이 이루어졌던 우리 대종회 운영 규칙인 대종회칙의 형식과 체계를 여러 종친들이 알기 쉽게 정비하고, 현대적인 용어로 바꾼 신 회칙을 2013년 7월 13일 제 35차 정기총회에서 확정하였다.

둘째, 지방종친회 명칭 통일

지방종친회의 명칭을 '명씨대종회 OO지방 종친회' 로 통일함으로써 명씨로서의 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게 하고, 소통이나 호칭 상의 문제가 없도록 하였다. 지방종친회 명칭 통일안은 2013년 7월 13일 제 35차 정기총회에서 확정되었다.

셋째, 대종회홈페이지 재정비

2012년 10월 15일 우리 종친 간의 또 다른 소통채널이자 정보전달 수단인 명씨대종회 홈페이지를 새로 손질하여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 현대적인 감각을 가미하여 리뉴얼한 이후, 새로운 뉴스나 공지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전국의 종친들이 대종회 소식을 손쉽게 접하도록 하였다.

넷째, 명씨대종보 연속발간

우리 명씨의 생활기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기록하여 모든 종친이 새 소식을 함께 나누고 종친 간의 일체감을 만들어 내기 위해 2012년 10월 26일 창간한 명씨대종보의 후속호가 2013년 2월 5일 제 2호, 2013년 3월 12일 특집호, 2013년 4월 29일 제 3호, 2013년 8월 26일 제 4호까지 네 차례 발간되었다.

다섯째, 시제 제관복 새로 지음

2012년부터 자랑스런 우리의 시조, 대하국 명옥진 황제에 대한 중국현지 추모제에 필요한 제관복과 대종회 파주사당 시제에 필요한 제관복을 새로 마련 시조황제를 향한 우리 후손들이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다듬고, 시제의 품격과 품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째, 중국정부와의 긴밀한 협조관계 구축으로 예릉기념관 개관

2012년 2월 29일 시조황제의 탄생지인 중국 호북성 수현의 기념관 개관에 이어 2013년 3월 16일 중국 중경시 강북구 상횡가에 있는 시조황제 릉 내 예릉기념관을 개관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 대종회는 중국 정부 측과 물심양면의 긴밀하고도 공고한 협조관계를 구축, 시조 어르신의 탄생부터 운명의 모습까지를 실체적으로 역사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 명확히 남길 수 있도록 하였다.

일곱째, 인재지원을 위한 대하장학회 장학기금 확충

우리 명씨를 더욱 자랑스럽고 빛나게 만들기 위한 인재지원 시스템인 재단법인 대하장학회가 보다 안정적으로 그들을 후원할 수 있도록 대종회장이 장학금을 추가 출연함으로써, 장학기금 규모를 40여억 원으로 대폭 확충하였다.

여덟째, 재실 및 다목적으로 활용될 대하파안기념관 건립

좁고 낡은 대종회 파주 사당의 재실을 대체하는 대하파안기념관을 신축키로 하고 2013년 4월 3일 공사에 착수하여 2013년 7월 13일 공사를 완료 준공식을 가졌다. 대하파안기념관은 각종 대종회 행사와 모임은 물론 우리 명씨 사료를 전시하는 역사박물관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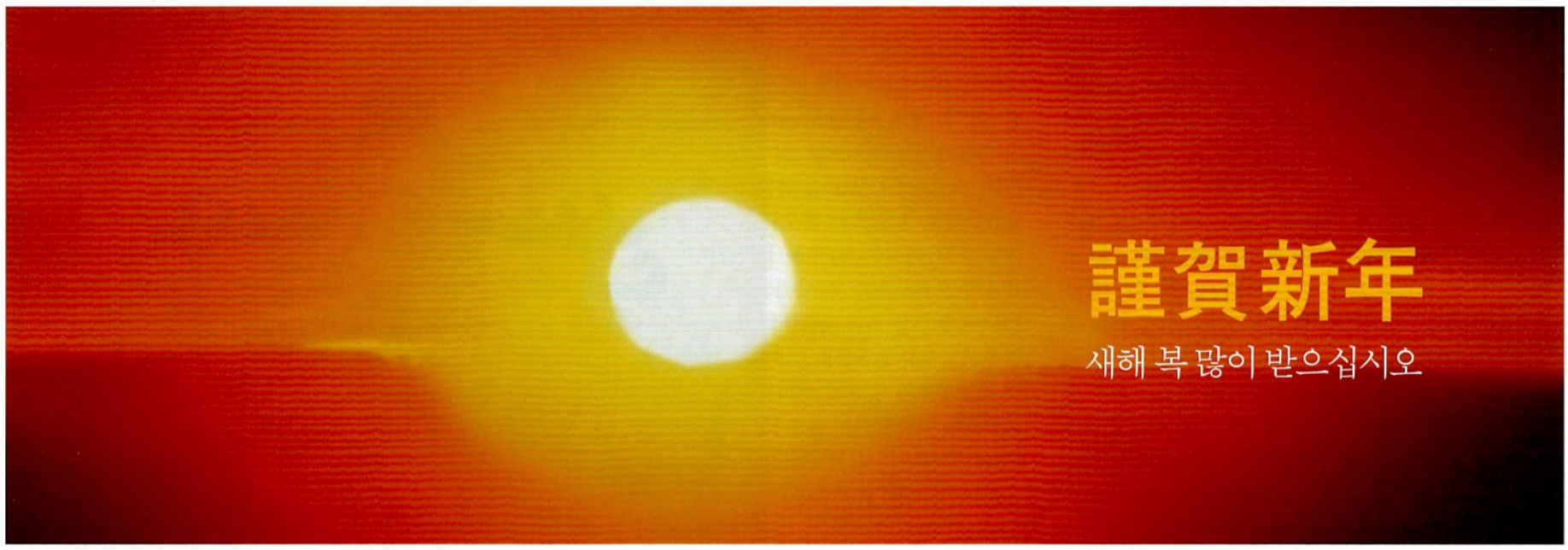
아홉째, 대종회 임원 및 여러 지방 종친들과 함께 올리는 지방 시제

각 지방 종친회 시제에 대종회 임원을 비롯한 여러 지방 종친들이 함께 참여토록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하나의 뿌리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결속을 공고히 하는 계기화하였다.

열째, 우리의 정체성과 역사적 사실을 전달할 명씨대종회 타임캡슐 매설준비

우리 대종회는 시조 황제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우리의 얼과 모습을 후손들에게 계승하기 위해 대하파안기념관 신축과 함께 타임캡슐을 매설하기로 하고 그 준비를 해왔다. 100년이 지난 후 열게 될 명씨타임캡슐은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명씨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명씨에 관한 일체의 역사적 사실을 일깨워주는 귀중한 사료가 된다. 매설 자료 준비 등의 문제로 예정보다 늦춰지고 있는 타임캡슐은 2014년 5월 5일 명씨대종회 정기총회 일에 매설식을 갖는다.

〈대종회 사무국〉



명씨대종회, 2014년 주요예정 업무 및 행사를 살펴본다

임원이상을 대상으로 열어온 신년하례식 2014년부터 열지 않기로 대종회 임원회의 최종결정

우리 대종회가 매년 1월에 열어왔던 신년하례식을 올해부터 열지 않기로 대종회 임원회의가 최종 결정하였다. 신년하례회는 대종회 임원과 지방종친회장 및 임원을 대상으로 서울 시내에서 열어왔으나, 겨울철 원거리 지방 종친들의 이동에 따른 교통안전 문제, 그리고 임원 중심으로 열어온 신년하례회가 일반 종친들과의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이다.
이에 대해 많은 대종회 임원들은 경비도 절감하게 되고 종친들의 안전과 의견을 존중하는 일이어서 잘 된 일이라고 환영하고 있다. 〈대종회 사무국〉

제648주기 명옥진 시조황제 추모제 2014년 3월 5일, 중국 중경시 예릉에서 올린다

우리 명씨 종친들이 연중행사로 모셔왔던 시조황제 제648주기 추모제가 오는 2014년 3월 5일(수, 음력 2월 5일) 중국 중경시 강북구 상횡가에 소재한 예릉에서 열린다.
참여를 희망하는 종친, 또는 종친 가족은 대종회 사무국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 일시: 2014년 3월 5일(음력 2월 5일), *관광포함 3박 5일의 자세한 일정은 일정표 참조
- 장소: 중국 중경시 강북구 소재 예릉

* 시조황제 탄생지(호북성 수주시) 기념관 방문은 희망 종친을 대상으로 예릉 추모방문과 분리하여 실시하는 것을 검토 중임.

(추모제 참가 문의 : 대종회 명순식 사무국장 전화 010-2008-8151)

제36차 대종회 정기총회 2014년 5월 5일 파주 대하파안기념관에서 열린다

명씨대종회 정기총회가 5월 5일 열린다. 임원회의를 거쳐 확정될 정기총회 의제 등은 확정되는 대로 명씨대종회 홈페이지와 지방종친회 연락망을 통해 공지된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명씨대종회 타임캡슐 매설식이 함께 열리므로, 대종회에서는 많은 종친들이 함께 참여하는 역사적인 기념비적 행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4년 10월 3일(금) 파주사당에서 명옥진 시조 황제 추향대제(시제)를 모신다

우리의 시조 대하국 태조 흠문소무(欽文昭武) 황제를 추모하는 추향대제(시제)가 2014년 10월 3일(금), 낮 12시에 파주 경모사에서 있다.
이번 시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올라오는 종친들이 모여 사당에서 시제를 모시고, 대하파안기념관 특설행사장에서 식사를 하게 된다. 대종회는 많은 종친들이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대종회는 지난해부터 대종회장의 특별지시로 종교 등의 문제로 시제 참여를 꺼려왔던 종친들을 위해 참관석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 〈대종회 사무국〉

여러 종친들과 함께해서 더 즐거운 지방 시제-

2014년 지방시제가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15일간에 걸쳐 각 지방 사당에서 각기 다른 날짜에 열린다.
지역별 지방시제 일정은 시제가 시작되기 전 우리 명씨대종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므로 참여를 희망하는 종친들은 지방 시제 날짜를 확인하고, 대종회에 참여를 알려주면 대종회가 마련한 교통편 등을 함께 이용하거나, 참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받아서 지방시제 참여가 가능하다.
각 지방마다 모셔오던 지방시제는 2년 전부터 지방 종친들 간 교차참여가 늘고 있어서 화기애애하고 흐뭇한 시간을 갖는 또 하나의 종친단합행사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지방시제 참여 문의 : 대종회 사무국장 명순식 전화 010-2008-8151)

명씨대종보- 2014년에도 매 분기마다 한번씩 발행된다

대종회 소식과 종친 소식을 담아서 전국의 종친은 물론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종친에게까지 배달되고 있는 명씨대종보가 올해에도 매 분기마다 한번씩 4차례 발행된다.
타블로이드판 풀컬러 8면 이상으로 발행되고 있는 우리 명씨대종보는 시간이 갈수록 구독희망자가 늘어서 현재는 5,000부가 발행되어 전국의 종친들에게 무료로 우편 배달되고 있다.
아직까지 구독을 신청하지 않는 종친들은 대종회 사무국에 구독신청을 하면 받아볼 수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도로명 주소 사용정책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되어온 지번 주소를 바꿔야 하므로,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종친들은 변경된 도로명 주소를 대종회 사무국으로 알려줘야 한다.

(신문 구독 및 주소 변경 알림 : 대종회 사무국장 명순식 전화 010-2008-8151)

2013년 파주사당 경모사에서 모신 대하 태조 명옥진 황제 추향대제

명 노 준
전 명씨대종회 사무국장

2013년 10월 3일 12시,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두포리 50-1에 소재한 경모사에서 우리 명씨의 시조 대하태조 명옥진 황제와 2세조 , 그리고 3세조를 추모하는 추향대제(시제)를 모셨다.

시제가 시작되기 전 오전 10시부터 전국에서 올라온 종친들이 모이기 시작한 2013년 시제는 이제까지의 시제 중 가장 많은 320여명의 종친이 참여한 가운데 올린 성대한 시제였다.

젊은 종친들은 대하파안기념관 1층 야외에 마련된 접수대에서 전국각지에서 올라온 종친들을 한분한분 예의를 갖춰 반갑게 맞으며 이름표를 찾아서 달아주고 사당으로 안내했다. 명위진 대종회장도 사당과 대하파안기념관 이곳저곳을 돌며 만나는 종친에게 활짝 웃으며 반갑게 두 손을 마주잡고 악수를 하는 등 시제참석에 대해 감사인사를 했다.

사당 내 외부와 황제의 동상이 서 있는 마당 구석구석은 일찌감치 물청소로 깔끔하게 단장을 마쳤고, 사당 내에는 명광길 상임 부회장을 비롯한 명을식, 명석호 공동 제례준비위원장을 비롯한 몇몇 임원들이 며칠 전부터 준비해온 제수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제기에 옮겨 정갈하고 보기 좋게 진설을 하고, 시조 황제의 영정을 펼쳐서 제단 정 중앙에 모시는 동안 시제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종친들은 사당 내에 마련된 자리에 공손하게 나란히 앉아 시제 시작을 기다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시제의 초헌관은 총랑공 명위진 대종회장, 아헌관은 자헌공 명홍조 대종회 고문, 종헌관은 부사공 명지성 대종회 이사와 시랑공 명인식 고흥종친이었으며, 축관은 대종회 명순식 상임이사, 그리고 대종회 명광주 상임이사가 사회를 맡아 시제를 진행했다.

시제를 마친 종친들은 대하파안기념관 1층 야외에서 제사음식과 뷔페식으로 이야기를 나누며 맛있게 식사를 함께 했는데, 식사 좌석 곳곳에 가족을 동반한 젊은 종친들이 눈에 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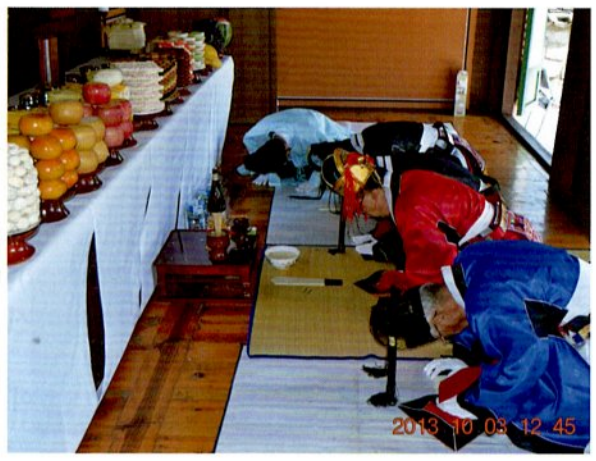
이날은 맑고 화창한 전형적인 가을 날씨이어서 신축된 대하파안기념관 준공식에 참여하지 못한 종친들이 새로 지은 기념관을 구경하기 위해 많이 몰려온 까닭에 외부에서 준비한 식사가 부족하여 별도로 2차례나 새로 밥을 지어 내어야할 만큼 종친들도 많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어서 종친들의 마음이 넉넉하고 풍성했던 시제였다.

이날 모든 시제 참석자들에게는 명위진 대종회장이 명씨대종회 이름을 새겨서 준비한 최고급 기념타올을 하나씩 선물했다.

2013 10 03 12 44

2013 10 03 11 30

2013.10.03 12:05


2013 10 03 12 45

2013 10 03 12 45

2013 10 03 13 11

2013.10.03 12:55

追 명씨 시조 대하(大夏)국 황제 시제 慕
2013년 10월 3일 명씨대종회

2013년 지방시제 참여기

지방시제를 다녀와서

대종회 상임이사 겸 산악회장 **명 영 식**

2013년 지난 해 지방시제는 11월 16일~11월 27일까지 청양, 창원, 서천, 금산, 태안, 고흥(덕흥리, 신금리) 등 7곳에서 모셨고, 대종회에서연 인원 80여명이 참여했다.
시제일은 창원과 태안, 그리고 서천과 금산이 중복되어 불가피하게 창원과 서천은 내년 기회로 미루기로 했다.

총랑공 집성촌인 태안시제에는 명위진 대종회장님께서 건강상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참석, 여러 종친들이 크게 반기는 모습이었다.
그동안 다소 소원했던 태안지방종친회 20세손 명귀진 회장님은 함께 시제를 모시러 갔던 우리 일행을 크게 환대하는 것은 물론 시제 시작부터 끝까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이끌어주셨다.
우리 위진 대종회장님은 20세손이어서 항렬이 높아 대부분의 경우에는 형님이라는 호칭을 쓸 기회가 없었는데, 나이가 더 위이신 태안의 지방종친회장님께는 깍듯이 형님이라고 부르는 등 두 분이 호형호제하며 마치 친형제가 제를 올리는 것처럼 보여서 분위기도 좋았고 자리를 함께 한 여러 종친들도 더없이 즐거워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종친들이 200여명이 넘고, 8세손이신 구수(龜壽)할아버지를 모시는 시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사당이 없는 관계로 산소에 올라 시제를 모시는 것이 내내 안쓰럽고 신경이 쓰였다.
묘비도 오랜 세월을 거치며 풍화된 까닭에 글자를 또렷이 알아볼 수 없어서 마음 한편이 조금 무거웠다.

총랑공 집성촌인 금산시제를 올린 사당은 화려하지는 않았으나 위패를 잘 만들어 놓아서인지 제례의 격식이 제대로 갖추어진 느낌이었고, 그래서인지 제를 모시는 모습에서 신뢰감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금산시제에는 그곳 금산에서 남편을 저 세상으로 먼저 떠나보내신 나이 많은 할머니께서 직접 시제에 참석하셔서 우리 모두가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금산시제는 총랑공 11세손 진학(進學) 할아버지부터 제사를 모시고 있었다.
안타까운 것은 금산의 종친들이 거리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태안의 8세손 구수(龜壽) 할아버지의 직계 손들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다. 족보에 대한 관심과 정확한 이해가 꼭 필요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했다.
놀라웠던 것은 금산 부리면 선원2리(가덕리) 태안 마을 입구에 세워져 있던 '효자 명공 기적비' 를 확인한 것이었는데, 효자비의 주인공은 11세손 진학(進學) 할아버지의 고손자인 15세손 명광덕 할아버지이시다. 전국에 있는 이런 훌륭한 선조들의 업적을 모두 모아 책자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다. 그렇게 하면 두고두고 우리 종친들이 그분들을 귀감으로 삼을 수 있고, 그것이 곧 우리의 자랑이 되기 때문이다.

청양은 청양군 운곡면 후덕리, 효제리를 중심으로 자랑스런 명가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 총랑공 집성촌으로 오늘의 대종회를 만들어 온 우리 명씨종친회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곳이다. 청양지방종친회(20세손 명효식 회장)는 대표적인 지방종친회로서 대종회장님의 고향이기도 하다.

청양시제는 대종회 제례위원장(명을식, 명석호)이 두 분이나 있어서인지 참석자 모두가 제례복을 갖춰 입고 제를 올리는 모습이 아름다울 정도였다. 다른 지역의 종친들이 부러워할 만큼 여느 시제와도 분위기가 사뭇 다르게 느껴졌다.

전국적으로도 가장 대표적인 명씨집성촌인 청양 운곡에 있는 사당 현모재는 작은 듯 하지만 짜임새 있게 잘 만들어져 있었다. 일견 서천의 사당이 조금 나은 듯도 하지만, 각각의 사당이 나름대로 좋은 느낌을 갖고 있었다.

청양사당인 현모재 앞에는 시조황제의 릉에서 출토된 현궁지비와 나란히 대종회장님의 공적비가 세워져 있었는데 청양의 종친들이 청양지방종친회를 위해 큰 역할을 해오신 위진 회장님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것이라고 한다. 그러고 보니 파주 대종회 사당으로부터 전국 방방곡곡 그분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는 것 같다.

시랑공 집성촌인 고흥군 덕흥리(회장 명노생) 시제에는 매년 대종회 몇몇 임원들이 참석해왔다. 올해는 더 나아가 덕흥리와 이웃해 있는 총랑공 집성촌인 신금리(회장 명경민) 시제까지 참석하느라 고흥의 두 지역 시제에만 2박 3일이 필요했다.

이번 고흥시제에는 멀리 창원지방종친회 명홍조 회장을 비롯 5명이 참여하여 더욱 화기애애하고 신나는 모습이었다.

한편 신금리 시제에서는 그곳에서 어부를 하는 자신이 1년 동안 직접 잡은 어물 중 가장 좋은 것만을 골라 시제의 제물로 바쳐왔다는 종친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종친들로부터 감동어린 시선을 한 몸에 받기도 했다. 이렇게 숭조정신이 투철한 종친이 있는 것이 그토록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다.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황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고흥 덕흥리에 있는 오래된 사당 영모재는 여수에서 사업(주식회사 KMT 대표)으로 성공한 명경식 대하장학회 이사가 사비를 들여 산뜻하게 다시 리모델링 해놓아서 참으로 고마운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에서 내려간 대종회 임원들과 함께 그곳의 시랑공과 총랑공 종친들이 모여서 즐거워하며 노래를 부르며 지낸 밤은 기억 속에서 쉽게 잊혀지지 않고 오래도록 남아 있을 듯하다. 그야말로 종친 간 화합의 한마당이었다. 밤이 깊어 가는 줄도 모르고 노래를 이어가다보니 헤어지는 것이 쉽지 않았다.

모임을 위해 적지 않은 비용을 내준 덕흥리종친회, 그리고 나로도 일주 뱃놀이를 마련해 준 봉래면장 출신인 신금리종친회 명경민회장님, 그리고 다음날 아침 식사와 숙박을 기꺼이 부담해주신 서울식당과 숙박업소 경영인 명홍성 사장님께 감사를 드린다.

신금리종친회 명경민 회장께서 상경하는 길에 먹으라고 싸준 민어와 광어회는 입에서 살살 녹을 정도로 맛이 있어서, 겨울바람이 몰아치는 노상 휴게소에서 게 눈 감추듯 먹어치웠다.

우리는 보통 이런 것을 민폐를 끼쳤다고 말하곤 하는데 종친 간이어서인지 거부할 틈조차 주지 않고 그곳의 종친들이 정성을 다해 대접하는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종친이란 이런 것인가 보다. 누구하나 남이라 할 이가 없으니 그냥 주고 그냥 받는 것이었다.

이번 지방시제 내내 만난 우리 종친 간에는 적어도 흐뭇함과 즐거움만이 있었을 뿐 따지는 것이 없었던 것 같다.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도 좋을 혈육의 정을 똑같이 나눈 우리, 종친이었다.

2014년이 지방시제가 기다려진다.

올해는 반드시 서천시제와 창원시제를 꼭 가봐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한 정말 즐거웠던 지방시제 순회였다.

지극 정성으로 환대해주신 지방 종친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격동의 세월, 새로운 각오

대하장학회 이사장 / 대종회 부회장
명 동 성

오늘 아침(2013.12.16.) CCTV (중국 중앙방송)의 주요 뉴스는 중국우주선 창어 3호의 달 착륙 성공에 대하여 시진핑 당주석이 국립항공연구원에서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장면을 시작으로, 아베 일본수상이 중국 포위작전을 위하여 동남아 각국에 외교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상황과 한국정부의 반응 등을 보도하면서 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중동 이스라엘 등지의 폭설로 고속도로가 폐쇄되고 도시기능이 마비되었으며 미국의 중남부, 중국의 중남부등에 폭설과 강풍으로 공항이 폐쇄되었다는 소식 등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루 아침의 뉴스 내용이지만 세상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상징적인 내용들입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으며 내일의 일도 예상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인생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혼돈입니다.
성실히 공부하고 철저히 준비한다면 희망찬 인생이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온갖 스펙을 갖추고 세상에 나왔으나 손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진학한다는 로스쿨 졸업생의 상당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젊음을 다 바쳐서 의학전문대학을 마치고 의사자격을 딴 많은 젊은이들이 치열한 경쟁을 이기지 못하고 숱하게 도태되고 있습니다.

혼돈의 시대, 격랑의 시대에 젊은이들은 대체 무슨 준비를 하여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현재 급격히 국경의 개념이 무너지고 있는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세계가 하나의 활동 공간이 될 것입니다.
좁은 땅덩어리에 5,000만 명이 넘은 인구가 생존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너무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너무 밀착되어 살면서 느끼게 되는 상대적 박탈감, 세계적인 경기불황에 따른 일자리 부족현상,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부담 증가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칠어지고, 불안해하고 있고 상당수의 젊은이들은 좌절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눈을 해외로 돌려야 합니다. 지평을 넓혀 많은 젊은이들이 해외를 무대로 활동하여야 합니다. 기마민족의 뜨거운 피를 갖고 고난을 극복하고 세계가 주목하는 성공의 신화를 이룩한 우리 민족의 젊은이들이 활동무대를 넓힌다면 개인은 물론 우리한민족 전체가 활로를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세상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은 생각이 바꿉니다.
죽의 장막 뒤에서 문화대혁명 등 사상투쟁으로 국가전체가 폐허가 되다시피 되었을 때, 개혁적인 사고를 가진 등소평 등 몇 명의 지도자가 개혁개방을 길을 택해 1978년 개방 이래 30여년의 시간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당당히 세계 최강국의 대열에 진입하였습니다.
금융 위기 등으로 세계경제가 휘청거릴 때 중국경제가 보루가 되어 세계경제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외환보유고 세계 1위, 세계의 생산기지이면서 최대의 소비지로 떠오른 중국을 무시할 수 있는 나라는 이제 세상에는 없습니다. 우리도 무역의존도에서 압도적인 1위의 국가가 중국입니다. 미국 및 일본과의 무역량을 전부 합하여도 중국과의 교역량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교역량 1조 달러 중 3,000만 달러이상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중국 자체 내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최소한 여러분이 살아 생활하는 동안에는 중국은 세계 최강국의 지위를 유지할 것이며, 우리사회는 중국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하루도 생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될 것입니다.
중국 뿐 아니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인도 등 동남아시아 각국도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중앙아시아의 구소련에서 독립된 많은 국가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이제 가난을 극복하려고 고민들을 하고 있는 많은 아프리카의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 젊은이들이 활동할 수 있고 우리 젊은이들을 기다리는 많은 곳들이 산재되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누구 말마따나 세상을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세상에서 외국어는 가장 기본이 되는 도구입니다.
외국을 무대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제가 잘 아는 모 그룹 회장님은 우리 교육시스템을 바꿔 중고등학교시절에 외국어 2-3개정도만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국가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명씨 종친의 젊은이들은 태생적으로 중국과의 인연이 있으니 중국어를 모국어처럼 써보겠다는 각오로 지금부터라도 공부를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어려울 때일수록 차분한 마음으로 기본을 다지고 항상 거시적으로 상황을 파악하여 대처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갑오년 새해를 맞아 좋은 기운들 받아 모두 평안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2013년을 기억하고, 2014년을 기약하며

대하장학생 **명 재 훈**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 지식기반 설계 연구실 석사 연구원

2014년 새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종친 여러분들께서는 새해 새로운 각오와 계획은 세우고 계신지요? 온고지신이란 말처럼 지난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계획하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지난해 제가 대하장학생으로서 대종회 행사에 참여했던 일들을 기억하며 새해를 맞으려고 합니다.
종친과 관련한 생생한 기억, 그것은 대하파안기념관 준공식(정기총회)과 시제였습니다.
7월13일에 있었던 대하파안기념관 준공식은 저에게 큰 충격과 감동이었습니다. 우선, 건물의 규모가 제 생각을 뛰어넘었고, 300명에 가까운 많은 종친들께서 참석한 행사의 규모도 놀라웠습니다.
저는 준공식이 있기 1주일 전 주말, 종친들과 함께 사당 청소에 참여했었는데 그렇게 하기를 잘했다고 느꼈습니다. 많은 종친들이 말끔하고 산뜻하게 준비된 새 건물의 준공식을 흐뭇해 했기 때문입니다. 종친들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새로 지은 우리 대하파안기념관의 크고 자랑

스러운 모습에 싱글벙글하며 덩실덩실 춤을 추듯 좋아했습니다.
새 건물을 대종회장님께서 지어서 대종회에 기부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존경심이 절로 우러나왔습니다. 역시 황제 어르신을 시조로 하는 우리의 회장님이시기에 마음 씀씀이도 대단하시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자랑스러워서 가슴에 단 용그림이 그려진 명찰을 달고 거리를 마구 뛰어다니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대종회장님께 마음속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박수를 쳤는지 모릅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역할을 분담하며 일사분란하게 움직이시는 임원 여러분들의 모습도 참 보기 좋았습니다. 준공식 행사는 제 가슴 한 가운데에 뜨거운 종친 사랑의 불덩이를 옮겨 붙여준 시간이었고, 자신감을 솟아오르게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10월 3일에 있었던 시제였습니다.
시제에도 역시 300여분쯤 되어 보이는 많은 종친들이 참석해서 사당이 북적북적한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종친들이 정성을 다해 시제를 올리는 모습에서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 날은 우리의 시조 황제 어르신을 비롯한 조상님들께 맛있는 차례 음식을 올리고 절을 드리는 시간이었지만, 제게는 특별한 각오를 다지게 한 시간이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예수님이 아니어도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나와 더 가까운 절대자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어려운 백성들을 위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훌륭한 생각으로 대하국을 세우셨던 우리 시조황제에 대한 아련한 그리움, 그리고 천하통일의 뜻을 접어야 했던 2세조까지의 짧은 역사에 대한 안타까움이 제게 또 한 번 큰 호흡을 하게 했고, 열심히 공부해서 반드시 명씨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성씨 중에 과연 우리 명씨처럼 전체 종친 수 대비 많은 사람이 모이는 성씨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했던 시제였습니다. 틀림없이 우리 명씨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성씨들과는 다른 응집력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제가 끝난 뒤 넓은 대하파안기념관 1층 뜰에 종친들이 모여서 제사 음식과 별도로 준비된 맛있는 뷔페 음식을 나눠먹는 것도 흐뭇하고 정겨웠습니다.

저는 두 가지 큰 대종회 행사에 참여해서 종친들이 하시는 일과 그 모습을 보고 젊은 후손으로서 가슴 뿌듯한 보람과 긍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대종회를 이끌어 가고 계신 대종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임원님들, 그리고 종친 행사에서 불과 한두 번 뵌 분들이지만 그새 정이 들고 낯익은 반가운 얼굴이 된 많은 종친 여러분들께도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대종회를 잘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드신 대종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넉넉한 마음의 여유, 넉넉한 종친 사랑이 있으신 분이란 생각에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 2013년의 대종회가 성공적이었던 만큼 2014년도 대종회도 성공적인 발전을 거듭해나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미력하나마 우리 명씨와 명씨대종회를 위해 틈나는대로 일할 생각입니다. 우리 명씨대종회가 하는 일들이 우리 명씨만의 고유하고 자랑스런 모습과 문화로 정착해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종친 여러분, 앞으로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더욱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안녕하신 한해가 되십시오.

명씨대종회장, 청양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장학기금 3억 원 기탁-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재단 내 '파안장학회' 설립

명씨대종회 청양종친회 총무
명 광 민

우리 대종회 회장이 선행은 남모르게 한다는 평소의 지론대로 2012년 12월 3억 원의 장학기금을 청양지역사랑과 학교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설립된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재단에 조용하게 기탁하였으나, 지역 신문이 이를 보도함으로써 청양지역민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재단은 3억 이상의 장학기금을 출연한 경우 기금출연자의 이름으로 장학회를 설립한다는 규정에 따라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재단 파안장학회' 가 출범하게 된 것이다. 장학기금의 이자수익으로 운영되는 파안장학회는 기금출연 만1년이 된 지난 2013년 12월 처음으로 청양의 우수 인재 20명에게 1,0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파안장학회는 앞으로도 매년 청양지역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청양에서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진학한 청양출신 인재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게 된다.
"사람에 대한 투자가 가장 보람 있는 투자며, 이웃과 함께 하는 나눔이야말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시작이다" 라는 우리 명씨대종회 회장의 교육관이자 철학이 이번에는 본인의 고향 청양으로까지 향한 것에 대해 자랑스러워하는 이들은 누구보다 청양에 살고 있는 300여 세대의 명씨들이다.
대종회 명위진 회장은 재단법인 대하장학회를 설립하고 총 40여억 원의 장학기금을 출연함으로써 우리 종친들에게 큰 감동을 준 데 이어 청양의 인재들을 위한 장학금을 만듦으로써 그의 인재 양성에 대한 열정과 관심을 또 한 번 확인시켜주었다.

중경 시조 릉 발견 이후 우리 명씨대종회를 도와 중국정부와 교류를 가능케 했던 한진극(韓辰極) 교수 타계

지난 1982년 3월 30일 중경시 강북구 상횡가의 중경직조공장 확장공사 중에 우리의 시조 고분이 발견될 당시 우리 명씨대종회 명위진 현 회장 일행이 중국 정부 측과 여러 차례 접촉하는 과정내내 통역을 맡아 큰 도움을 주었던 한진극(韓辰極) 교수가 6월 19일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타계소식은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그의 부인 엄리리씨가 명위진 대종회장에게 편지로 전해왔다. 뒤늦게 소식을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았던 대종회장은 그의 갑작스런 죽음을 매우 안타까워하며, 늦게나마 고 한진극 교수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명씨대종보 편집국〉

尊敬的明渭镇社长:

我带着悲痛的心情向您告知我丈夫韩辰极先生因心脏病突发经抢救无效,于今年6月19日晚不幸去世.

先生生前念念不忘您对我们一家的恩惠.在韩国的二十多年中,承蒙社长对我们的关怀与照顾,能使先生和我过上比较安定的生活,在此我和我的先生再一次向您表示深深的感谢!也请向重庆的老朋友们致意.韩先生是非常珍惜这段友情的.也转告对夫人的问好,希望你们永远健康长寿.先生曾告知说您喜欢美国咖啡特寄上并附综合维他命.以后如有什么需要请随时告知,千万不要客气!最后再一次谢谢,再谢谢!

韩辰极之妻
严莉莉敬上
2013年11月10日

联系电话:011-210-748-5833

明渭鎮社長親啟

BY AIRMAIL
PAR AVION

사진은 고 한진극 선생의 부인이 보내온 편지전문과 시조황제고분 발견당시 명위진 대종회장과 함께 황제의 곤룡포를 살펴보고 있는 한진극 교수(사진 가운데)의 생전 모습

2013년 청양지방종친회 정기총회, 종산 및 종토 관리방안 논의

대종회 상임부회장
명 광 길

청양지방종친회 정기총회(회장 명효식)가 2013년 12월 6일 청양사당, 현모재에서 열렸다.

정기총회는 명효식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명광민 총무가 지난 1년 동안의 주요 업무 및 행사, 그리고 시제 찬조금 등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보고하고, 이어서 명제균 감사가 감사결과를 보고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정기총회에서 논의된 안건 중 주목할 것은 청양 종중 소유의 종산과 종토에 관련한 사항이었다.

청양지방종친회는 그동안 청양 종중이 소유한 종산과 종토 등 종중 자산현황을 조사, 그 현황을 파악해왔는데 일부 종친들의 경우 종산과 종토를 개인소유로 판단, 종산과 종토를 매매하는 등 관리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종산과 종토 등 종중의 재산은 개인소유물이 아니라 종친 공동의 재산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종산과 종토를 항구적으로 안전하고도 완전하게 보전 관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공동의 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한 발전적 논의를 거듭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양지방종친회는 이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와 해결책을 적극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명대산악회, 파주경모사에서 신년 맞이 단배식 갖고 감악산 산행실시

명대산악회(회장 명영식 대종회 상임이사)는 2014년 1월 1일, 새해를 맞이하며 파주 경모사에서 준비해간 음식을 시조황제님께 차려올리고 명씨 종친들에 대한 새해 축복을 기원하며, 함께 단배식을 가졌다.

명영식 산악회장, 대종회 명순식 사무국장, 화진, 지성, 노석, 환철, 노갑, 홍성 종친과 형란 종친 부부 등 참석자들은 사당과 대하파안기념관을 둘러본 후, 인근 파주, 양주, 연천에 걸쳐있는 유명한 감악산과 임꺽정봉 정상을 완주하는 산행을 했다. 일행은 오후에 사당재실에서 사당관리를 맡고 있는 대종회 명형란 여성회장이 준비한 음식을 함께 나누며, 대종회 발전과 종친 친목도모 등에 관해 화기애애하게 이야기하며, 새해 멋진 출발을 다짐했다.

〈명씨대종보 편집국〉

대종회 신임사무국장에 대하장학회 명순식 사무총장 임명

신임 사무국장
명 순 식

우리 명씨대종회 명위진 회장은 2013년 11월 19일, 대종회 사무국장에 명순식 대하장학회 사무총장을 신임 사무국장으로 임명하였다. 신임 명순식 대종회 사무국장은 대하장학회 사무총장직을 함께 맡아서 수행하게 된다.

그동안 명씨대종회 사무국 업무는 무려 6년 동안 명노준 사무국장이 맡아왔는데, 대종회 업무가 많은 관계로 인계인수 작업에 며칠이나 걸렸을 정도였다고 한다. 전임 명노준 사무국장 후임으로 새로 임명된 신임 명순식 대종회 사무국장의 약력은 다음과 같다.

- 1950년 전남 고흥 출생(시랑공 22세손)
- 세기문화사 국장 역임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법학박사) 역임
- 현, 종친회 골프모임, 서촉회 회장
- 현, 명씨대종회 상임이사
- 현, 대하장학회 사무총장

〈명씨대종보 편집국〉

명씨대종보가 광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2년 8월 31일 창간 준비호 발행 이후 현재까지 총 6회에 걸쳐 무려 30,000부가 발행된 명씨대종보는 풀 컬러 8면 이상 고급 용지로 발행되는 신문으로 광고원고 재현효과가 우수합니다. 특히 우리 신문은 보관과 윤독율이 높아 광고효과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문의 품위를 떨어트리지 않는 범위 내 광고게재를 고려하고 있으니 많은 문의바랍니다.

광고게재 문의
대종회 사무국장 명순식
전화 010-2008-8151
팩스 031-953-1617

시조황제 예릉 추모 방문단 모집

2014년 3월 3일~ 3월 7일(3박 5일)

떠나는 기쁨, 만나는 즐거움
톱클라스항공여행
톱클라스골프라인
대표이사:임성학
전화:02-739-2525
팩스:02-739-2524
www.topclasstour.com
Top Class Air Travel/Top Class Golf Line

◆ 행사명	명씨대종회 중국 중경 예릉 추모방문 및 관광

◆ 여 정 (예 정)

	구 간	출발시간	도착시간	항공편
출 발	인 천 → 중 경	03월 03일(월) 20:30	03월 03일(월) 23:50	OZ 357
도 착	중 경 → 인 천	03월 07일(금) 00:50	03월 07일(금) 05:30	OZ 358

◆ 1인 상품 가 (최소출발: 40명)

아시아나항공/ 준 특급호텔(뉴서아호텔)	\ 969,000원

◆ 상품특전

항공편	직항편(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하여 편안한 여행을 보장합니다.
호 텔	전 일정 준 오성호텔 : 중경 뉴서아호텔
일 정	◆ 세계 문화유산 중 하나인 대족석각 관람 ◆ 원림박람원, 자기구 옛 거리 관광 ◆ 만성석림, 흑산곡 관광 ◆ 발 맛사지 1회 포함
식 사	◆ 특식 : 샤브샤브, 대나무요리

◆ 포함사항

① 항공료 + 유류할증료 93,000원 기준	② 숙박비(2인 1실)
③ 일정상의 관광지 입장료	④ 차량비(55인승/2대 사용시 3만 원추가)
⑤ 일정상의 식사	⑥ 1억 원 여행자 보험
⑦ 기사. 가이드 팁	⑧ 단체비자 25,000원 - 여권사본 필요
⑨ 노 쇼핑	

◆ 불포함 사항

① 싱글차지 3박 25만원

② 매너 팁, 항공 수화물 초과 차지등 개인비용

③ 중국비자비 : 주민번호 125,225 시작이신 분은 개인비자 발급해야 합니다.
개인비자 30,000원 추가 - 여권, 사진1장

◆ 현지 기후

중 경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03월 기온	13.9℃	16.8℃	10.9℃
시 차	한국보다 1시간 느립니다.		

※ (늦)가을옷+겉옷, 썬크림, 모자, 썬글라스, 우산, 편한신발, 비상약, 멀티아답타등

◆ 입금계좌

▶ 예약금 입금 : 01월 10일(금) 限 1인 10만원씩
입금구좌 : 외환은행 / 027-13-20475-0 / 톱클라스항공여행 대표이사 임성학
▶ 여권사본 송부 : 02 월 05일(수) 限 / 팩스번호 : 02-739-2524
▶ 잔액 입금 : 02월 14일(금) 限

◆ 주요연락처 톱클라스항공여행 : Tel : 02-739-2525 / Fax : 02-739-2524

떠나는 기쁨, 만나는 즐거움
톱클라스항공여행
톱클라스골프라인
대표이사:임성학
전화:02-739-2525
팩스:02-739-2524
www.topclasstour.com
Top Class Air Travel/Top Class Golf Line

일 자	장 소	일 정
1일차 03/03 (월)	인 천 → 중 경	[18:00] 인천공항 3층 미팅 - M 카운터 옆 창측 여행사 데스크 [20:30 / OZ 358] 인천 국제공항 출발 - 약 4시간 20분 비행 [23:50] 중경 국제공항 도착 입국수속 / 가이드 미팅 호텔 이동 및 투숙

NEW XIYA HOTEL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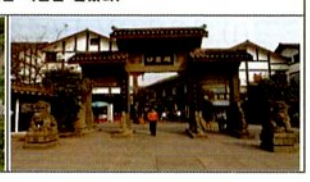
4성급 호텔로 2012년 리모델링으로 내부는 완전 새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중경공항에서는 약 40분. 주요 관광지는 약 20분정도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외관이 크고 주변에 과일가게, 포장마차 등이 있어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86-23-6860-0999

조 식 : NONE	중 식 : NONE	석 식 : 기내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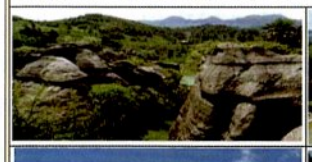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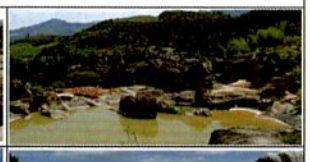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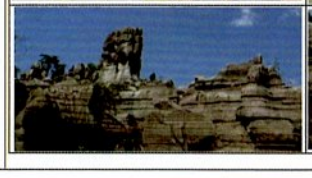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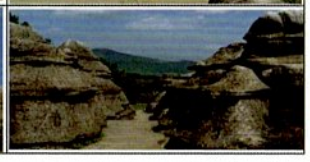
일 자	장 소	일 정
2일차 03/04 (화)	중 경	호텔 조식 후, 대족이동 - 약 2시간 30분 ▶ 유네스코에 지정된 대족의 '대족석각' ◆ 세계문화유산 중 하나인 대족석각(大足石刻) ◆ 중경시에서 81km 떨어져 있으며, 석각의 주 표현양식은 마애불상의 석굴양식입니다. 문물보호 단위로 공표된 마애불상이 75곳에 이르며, 조각품은 5만여점, 비문은 10만여자에 이릅니다. 그중 북산(北山), 보정산(寶頂山), 남산(南山), 석전산(石篆山), 석문산(石門山)의 마애불상의 규모가 가장 크며, 내용도 풍부하고 조각 역시 섬세하며 우아합니다. 대족석각은 초당(初唐)부터 지어지기 시작하여 오대(五代)를 지나 양송(兩宋)대에 이르러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불(佛), 도(道), 유(儒) 세 종교의 조각들이 모여 이루어져 전기 석굴과는 다른 점을 지닙니다. 선명한 민족화, 세속화, 지방화된 특색을 갖고 있어서 실물형상과 문자 사료 등으로도 많이 운용되며, 당송 시기의 석굴 예술의 풍격과 민간 종교신앙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9세기 말부터 13세기 중엽까지 세계 석굴 예술상에 가장 휘황찬란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경으로 이동 ▶ 여행의 피로를 풀어주는 '발 맛사지' 1시간 ▶ 파측의 전통건축물의 비즈니스레저 풍경과 도시풍경이 합쳐진 '홍아동거리' 호텔 투숙 및 휴식

조 식 : 호텔식	중 식 : 현지식	석 식 : 샤브샤브

떠나는 기쁨, 만나는 즐거움
톱클라스항공여행
톱클라스골프라인
대표이사:임성학
전화:02-739-2525
팩스:02-739-2524
www.topclasstour.com
Top Class Air Travel/Top Class Golf Line

일 자	장 소	일 정
3일차 03/05 (수)	중 경	호텔 조식 후, ◆ 공식행사 : 예릉 참배 중식 후, ▶ 중경시 원림박람원, 자기구 옛거리 관광 ▶ 중경 원림박람원 중경 북부신구 용경호에 위치하며 멀리 있는 계운산, 계공산, 가릉강은당협, 관은협 등 산의 풍경, 물의 풍경, 협곡풍경과 북배성시 경관을 볼 수 있는 관광지이다. 북방정원, 강남정원, 형남정원, 민태정원, 현대정원, 중심정원, 실천정원, 서부정원, 홍콩 및 마카오정원, 해외도시정원(한국원)등이 있다. ▶ 자기구 옛 거리 중경시의 서쪽 4km부근인 가릉강 옆에 위치하여 있다. 명, 청시대로부터 자기구 옛 거리는 파측대지라는 미명을 갖고 있으며 모두 12개의 거리로 되어있다. 거리 양측은 명,청풍의 건축물이 있고 지면은 석판을 깔았다.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조 식 : 호텔식	중 식 : 현지식	석 식 : 한 식

일 자	장 소	일 정
4일차 03/06 (목)	중 경	호텔 조식 후, 만성으로 이동(약 2시간) ▶ 중경 석림의 시조 "만성석림(도보) 관광 곤명석림 보다 규모가 매우 크며,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석림으로 천연동굴 사이를 지날 때 여름철은 시원하고 겨울철은 따뜻하다. 해발 2천 미터에 바닷가 물고기 비늘 같은 모양이 인상적이며 땅속에서 발굴했다는 것이 믿기 어려울 정도다. 관광할 때 주의사항은 전부를 다 보려고 하면 반나절 이상 걸리지만, 2시간 정도 들 부채, 천연동굴, 고기비늘 등 핵심적인 것만 보길 추천한다.    

떠나는 기쁨, 만나는 즐거움
톱클라스항공여행
톱클라스골프라인
대표이사:임성학
전화:02-739-2525
팩스:02-739-2524
www.topclasstour.com
Top Class Air Travel/Top Class Golf Line

일 자	장 소	일 정
4일차	중 경	중식 후, 흑산곡 입구로 이동 (약 30분) ▶ 원시 상태가 완벽히 보존된 생태구역 "흑산곡" 케이블카 + 전동카 현재 중경에서 가장 큰 원시 생태 보호지역으로 협곡 사이의 물위에 만든 다리를 걸어 다니며 보는 삼림욕 비슷하지만, 실제 다리 위를 걸으면 매우 스릴이 있다. 중경으로 복귀하여 석식 후, 공항으로 이동

조 식 : 호텔 식	중 식 : 현지 식	석 식 : 대나무 요리

일 자	장 소	일 정
5일차 03/07 (금)	인 천	[00:50 / OZ 358] 중경 국제공항 출발 - 약 3시간 10분 비행 [05:00] 인천 국제공항 도착 // 즐거운 여행을 마칩니다.

시조황제 예릉 추모제를 위한 3박 5일 일정의 중국 예릉 방문 및 관광 세부 일정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종친께서는 대종회 사무국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대종회 명순식 사무국장 전화 010-2008-8151)

명씨대종회 타임캡슐 매설예정 목록

1. 명옥진 황제 최종 영정 사진 2. 명옥진 황제 동상 사진 3. 명옥진 황제 예릉(중국 중경시) 발견 경위 설명문 4. 명옥진 황제 예릉(중국 중경시) 발견 당시 최초모습 사진 5. 명옥진 황제 예릉(중국 중경시) 출토 현궁지비 사진 (진본 비의 사진) 6. 명옥진 황제 예릉(중국 중경시) 출토 현궁지비 탁본 (복제비의 탁본 사진) 7. 명옥진 황제 예릉(중국 중경시) 출토 황금 술잔 사진 (진품 사진) 8. 명옥진 황제 예릉(중국 중경시) 출토 곤룡포 (원본 사진) 9. 명옥진 황제 예릉(중국 중경시) 출토 곤룡포에 새겨진 다섯 발가락 용문양 (사진) 10. 명옥진 황제 예릉(중국 중경시) 발굴시, 명위진 명씨대종회장의 곤룡포 최초 확인모습 사진 11. 명옥진 황제 대하국 어인 사진 및 어의의 형태 사진 12. 명옥진 황제 대하국 화폐 사진 13. 명옥진 황제 예릉(중국 중경시) 출토 유물을 전시하고 있는 중국 삼협박물관 모습 사진 14. 명옥진 황제 묘장연구 책자(중국) 표지사진 15. 명옥진 황제 묘장연구 책자(중국) 내지 표제지 사진 16. 명옥진 황제 묘장연구 책자(중국) 전문 17. 명옥진 황제릉(중국 중경시) 현판 설치 모습 사진 18. 명씨대종회 발간 명씨시조사 책 원본 19. 명씨대종회의 명씨 시조사 관련 및 중국 정부 측과의 서신 교류 20. 명씨대종회와 중국 명씨들과의 서신 교류 21. 명씨대종회와 중국 감씨들과의 서신 교류 22. 2013 명옥진황제릉(중국 중경시)기념관 개관식행사 사진 23. 2013 명옥진황제릉(중국 중경시)기념관 개관식행사 동영상DVD 24. 2012 명옥진탄생지(중국 호북성 수주시) 기념관 개관식행사 사진 25. 2012 명옥진 황제탄생지(중국 호북성 수주시)기념관 개관식행사 동영상DVD 26. 2012 명옥진 황제탄생지(중국 호북성 수주시)기념관 기마상 제작배경, 과정 사진 27. 2012 명옥진 황제탄생지(중국 호북성 수주시)기념관 기마상건립 찬조금 납입자 명단 및 동판 사진 28. 2012 명옥진 황제탄생지(중국 호북성 수주시)기념관 기마상 사진 29. 명옥진 황제탄생지(중국 호북성 수주시) 흙과 흙을 담은 항아리 사진 30. 대하황제 명옥진 소설(중국) 원본 책자 31. 명씨대종회 발간 대하황제 명옥진 소설(한국) 번역 책자 32. 명씨대종회 발간 대하황제 명옥진 소설(한국) 번역 책자 제작과정 중의 가제본 33. 연안(서촉) 명씨족보발행 내역표 34. 연안(서촉) 명씨의 초기 족보표지 사진 35. 연안(서촉) 명씨의 초기 족보 영인본 원본 36. 연안(서촉) 명씨의 초기 족보 영인본 내지 전체 사진 37. 연안(서촉) 명씨의 최종 족보 원본 38. 연안(서촉) 명씨의 최종 족보 원본 표지 사진 39. 연안(서촉) 명씨의 최종 족보 내지 전체 모습 40. 역대 연안(서촉) 명씨족보 사진 41. 청양 연안(서촉) 명씨족보 세보 표지 사진 42. 청양 연안(서촉) 명씨족보 세보 내지 전체 사진 43. 명씨대종회 설립 배경 연혁 44. 명씨대종회 구성 및 현황 45. 명씨대종회 역대 회장 사진 46. 명씨대종회 조직 및 임원 명단 47. 명씨대종회 역대 사무국장 명단 48. 명씨대종회 회칙 전문 49. 명씨대종회 채택 항렬표 50. 명씨대종회 현판 사진 51. 명씨대종회 사무실 모습 사진 52. 명씨대종회 임원회의 모습 사진 53. 명씨대종회 산하단체 구성 및 현황 54. 명씨대종회 산하단체 활동사진 55. 명씨대종회 파주사당 사진 56. 명씨대종회 파주사당 건립배경 57. 명씨대종회 파주사당 추향대제(시제)모습 사진 58. 명씨대종회 파주사당 추향대제(시제) 동영상DVD 59. 명씨대종회 파주사당 추향대제(시제) 축문 60. 명씨대종회 파주사당 추향대제(시제) 지방 61. 명씨대종회 파주사당 추향대제(시제) 진행순서 62. 명씨대종회 파주사당 추향대제(시제) 제음식 진설 사진 63. 명씨대종회 파주사당 추향대제(시제)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집사 등 제례복 사진 64. 명씨대종회 파주사당 추향대제(시제) 참가자 현황 65. 명씨대종회 지방종친회 구성 및 현황 66. 명씨대종회 지방종친회 사당 모습 사진 67. 명씨대종회 지방종친회 지방시제 모습 사진 68. 명씨대종회 상징 깃발 사진 69. 명씨대종회 표식 서체(로고타입) 70. 명씨대종회 사용서식들 71. 명씨대종회 발행 명씨대종보 발간 취지, 발간횟수 설명문 72. 명씨대종회 발행 명씨대종보 전체 원본 73. 명씨대종회 발행 명씨대종보 전체 원본 사진 74. 명씨대종회 발행 명씨대종보 발송봉투 원본 및 사진 75. 명씨대종회 발행 명씨대종보 발송대상자 명단 76. 명씨대종보 QR코드 77. 명씨대종보 로고타입 78. 대하파안기념관 신축배경 및 취지 79. 대하파안기념관 신축 기금 및 찬조금 기부내역 80. 2013년 7월 13일 대하파안기념관 준공식 사진첩 81. 2013년 7월 13일 대하파안기념관 준공식 DVD 82. 대하파안기념관 세부 모습 사진 83. 대하파안기념관 현판 사진 84. 대하파안기념관 준공기념 명씨대종회 타임캡슐 매설 배경 및 취지 85. 대하파안기념관 준공기념 명씨대종회 타임캡슐 표지석 사진 86. 대하파안기념관 준공기념 명씨대종회 타임캡슐 매설물 목록책자 87. 2013년 7월 13일 명씨대종회 제35차 정기총회 회의자료 88. 2013년 7월 13일 명씨대종회 제35차 정기총회 대종회장 인사말 89. 2013년 7월 13일 대종회 제35차 정기총회 감사패 수여자 명단 90. 2013년 7월 13일 대종회 제35차 정기총회 찬조금 납입자 현황 91. 2013년 1월 명씨대종회 신년하례회 사진첩 원본 92. 2013년 1월 명씨대종회 신년하례회 대종회장 인사말 93. 2013년 1월 명씨대종회 신년하례회 회의자료 94. 명씨의 인구통계 및 전국 분포도 95. 명씨대종회 홈페이지 모습 사진 및 구성 96. 명씨와 관련한 중국포털 사이트의 기사내용 모음 97. 재단법인 대하장학회 설립취지 및 설립과정 98. 재단법인 대하장학회 초대이사장 인사말 99. 재단법인 대하장학회 역대 이사장 사진 100. 재단법인 대하장학회 임원 구성 현황 101. 재단법인 대하장학회 장학기금조성 현황 102. 재단법인 대하장학회 장학금 지급규정 103. 재단법인 대하장학회 장학금 수혜자 명단 104. 재단법인 대하장학회 장학금 지급행사 사진첩 원본 105. 재단법인 대하장학회 장학증서 및 서식류 사진 106. 재단법인 대하장학회 임원회의 모습 사진 107. 재단법인 대하장학회 홍보 블로그 사진 108. 재단법인 대하장학회 표식 서체(로고타입) 109. 청양지역 인재발굴 육성을 위한 파안장학회 설립 현황 110. 명씨 여성교육지침 열녀전 사진 111. 명씨 여성교육 지침 열녀전 전문 112. 명씨 독립기념관 보존 독립운동 회합 통지문 사진 113. 명씨 전래 다식판 사진 114. 명씨 가정의 제기 사진 115. 명씨 토지 소유권 판결지 116. 명씨 가정의 지방작성모습 사진 117. 명씨 가정의 신년 휘호 118. 명씨 가정의 문인화 119. 명씨 가정의 시문학 120. 명씨 가정의 기타 121. 명씨대종회장이 후손에게 남기는 글

재단법인 대하장학회가 2014년도 대하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재단법인 대하장학회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01년 첫 장학기금을 모으기 시작하고 2002년부터 지금까지 장학금을 지급해온 인재지원시스템, 재단법인 대하장학회가 2014년도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신청대상** : 명씨(모친명씨 포함) 자녀로 대학, 대학원 신입생 및 재학생
2. **제출서류** :
   (1) 지원서1부(명씨대종회 홈피, 또는 대하장학회 다음카페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2) 성적증명서 1부(대학 신입생은 고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제출)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재산세 과세증명서 1부(부모님)
   (5) 소득증명서 1부(부모님)
   (6)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이내 자유 형식, 자필로 작성)
   (7) 지방종친회장 추천 환영
3. **신청마감** : 2014. 2.10.(월)
4. **장학생 선정** : 대하장학회 이사회의 엄정한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명씨대종회 홈피 및 대하장학회 다음카페에 공지함.
5. **문의** : (재)대하장학회 사무총장 전화 010-2008-8151, 031-953-0756

재단법인 대하장학회가 2014년도 대하복지금 지원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재단법인 대하장학회가 다음과 같이 대하복지금 지원대상자를 모집하오니 신청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장애인, 소녀소녀가장, 독거노인, 극빈자
2. **제출서류** :
   (1) 지원서 1부(지원필요성을 상세하게 기록)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장애인증명 등)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지방종친회장 추천서 1부
   (5) 지방종친회장 추천 환영
3. **지원내용** : 설날 및 중추절 약간의 위로금 지급
4. **지원서 마감** : 2014. 1. 20(월)
5. **장학생 선정** : 대하장학회 이사회의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명씨대종회 홈피 및 대하장학회 다음카페에 공지하고 개별 통지함.
6. **문의** : (재)대하장학회 사무총장 전화 010-2008-8151, 031-953-0756

명씨대종보 관련 문의 및 구독신청

- 명씨대종보 편집인 명광길 010-6220-8065 이메일 : mkk2634@naver.com
- 명씨대종보 편집국장 명광주 010-4267-3610 이메일 : adpromyung@naver.com
- 대종회 사무국장 명순식 010-2008-8151 이메일 : nismyung@daum.net